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0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토크쇼 대한민국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푸름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08 00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0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0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제2(재)	40 VJ특공대(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내조의 여왕(재)	00 KBS네트웍 특선 보물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50 황금의 펜타곤 2(재)	00 찾아라 맛있는 TV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맛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0 MBC 정오뉴스 20 MBC특별생방송 행복나눔 김장 대축제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중흥 S-클래스 2014 고교동문골프대회(재)
1 40 뉴스특급	00 TV 책을 보다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추적 60분(재)	25 TV속의 TV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실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특별기획 코리아인조 그래픽(재)	25 똑똑뉴스클 55 MBC 뉴스	00 네트워킹강고양이보인다
3	00 KBS 뉴스 10 생명최선(재)	00 키오카 30 자동 공부책상 위키	05 아하 동물탐험대2(재) 55 아동다중 문화나라	00 SBS 뉴스 10 다큐드라마 (역사를 만든 사람들)(재)
4 00 정오관의 시사방법	00 시사진단 55 튜튼 생활제2	00 TV 유치원 풍다공 30 애니월드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30 나머들의 크레파스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외계가족 줄리폴리 20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파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정보통	10 생방송 '빛날' 20 광주MBC정사50주년 (공재 윤두서 300년만의 만남)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관촬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 7 30 러브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갈대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0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30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뉴스토리
9 3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TV동화 빨간자전거 스페셜	00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	00 월화특별기획 (오만과 편견)	00 SBS 대기화 (비밀의 문)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소중한 나눔 이야기	10 우리동네 예제부	15 PD수첩	15 롬메이트
12 10 웰컴 투 서울드(재) ①:20 닥터 지.박.고	30 국악한마당 ①:20 KBS네트웍 사람세상 45 뉴턴의 사과나무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①:35 영상앨범 산(재)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①:45 MBC 플러스 특선 우리집에 연예인 산다	35 나이트라인 ①:05 특집다큐 대안교육을 말하다 2부

“다함께 즐거운 음악 그 꿈이 이루어졌죠”

임창정 새 앨범 '임박사와 ...'·'친한사람'



5년에 한 번 정도 감기에 걸린다는 임창정(41)은 지독한 감기로 최근 링거를 맞았다고 했다. 24일 발매하는 새 앨범을 준비하며 무리한 듯 보였다.

지난 3월 낸 12집이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하며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힌 터라 부담이 생긴건지 묻자 “절대 아니다. 더 잘 나가려고, 1등 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 그런 건 하늘이 때가 되면 노래의 대가로 선물 차원에서 응대해주는 것 같다”고 손사래를 쳤다.

최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배우 겸 가수 임창정을 인터뷰했다. 즐기면서 음악을 만들었더니 목표가 이뤄지는 경험을 했다는 그는 이번에도 오로지 팬들과 즐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앨범을 만들었다고 했다. 발라드와 댄스를 아우르는 가수답게 댄스곡 '임박사와 함께 춤을'과 발라드곡 '친한 사람'을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그중 '임박사와 함께 춤을'은 12집 수록곡이었지만 새롭게 편곡해 아예 다른 느낌의 곡으로 재탄생시켰다. 멜로디를 다시 써서 쉽게 따라부를 수 있도록 했고 걸그룹 EXID의 엘리가 랩을 더했다. '테크노 뽕짝'으로 인기를 얻은 '신바람 가수' 이바사가 원곡에서 내놓은 추임새는 그대로 살렸다.

임창정이 이 곡을 다시 선곡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처럼 “웃으며 살자”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개인적으로 웃을 일이 별로 없었다고 했다. 많이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웃어보자”는 생각에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1분 동안 ‘미친놈’처럼 웃어봤다.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잇달아 생겼고 그 때 때문에 더 웃게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이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웃으면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요. 짧은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살이니 돈 없다고 의기소침해 하지 말자는 거죠. 억울스런 철학을 담았어요.”

노래에 발맞춰 뮤직비디오와 춤 동작도 ‘완전히 웃자’는 의도로 만들었다. 뮤직비디오에는 마당발로 유명한 임창정의 인맥이 총출동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평소 웃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이메일과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줬다. 신동엽, 이범수, 김진표, 공형진, 조권, 용감한형제, 유세운, 감우성, 오현경, 이선희, 에일리, 바비킴, 에픽하이, 씨스타, 최다나, 백지영, 박경림, 설윤도, 에이핑크, 김창렬 등 출연진이 60여 명에 이른다.

그는 “스타들의 웃음을 담았다”며 “아이들 가수부터 설윤도

선배님 같은 윗세대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여해줘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안무에도 장구 춤부터 현진영 춤, 마이클잭슨의 춤 등 대중이 알 만한 포인트 동작을 넣었다.

“그가 이처럼 뮤직비디오에 공을 들인 데는 지난해 발표한 곡 ‘문을 여시오’의 뮤직비디오가 코믹한 연출과 유명인들의 카메라 출연으로 온라인에서 크게 주목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800만 건에 육박하며 특히 해외 누리꾼 사이에서는 ‘씨이의 강남스타일만큼 재미있다’는 평도 들었다.

또 다른 곡 ‘친한 사람’은 감성적인 발라드로 가을이란 계절과 맞물려 음원차트에서 댄스곡보다 더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 고백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픔을 담은 곡으로 “사랑하는 걸 알면 멀리할까 봐 고백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도 친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잇달아 앨범을 내며 히트곡을 낸 그는 가수로서 재도약한 모양새다. 과거 배우로서 영화에 무게 중심을 둔 때와는 달린 행보다. 그러나 그는 내년에는 계획해둔 출연작이 많아 더 바빠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영화 ‘치외법권’ 촬영을 시작한다”며 “또 내년에는 중국 영화에도 출연할 것 같다. 한국과 중국의 코믹 배우를 내세운 작품이라고 한다. 드라마도 하고 싶는데 아직은 안 들어온다”고 웃었다.

앨범 작업을 마친 그는 지금도 연말 공연 준비를 하라. 관계자들과 미팅하라, 동대문 등지에 그의 히트곡 이름을 따서 낸 포장마차 ‘소주 한잔’을 운영하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그가 오는 12월 24~25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여는 공연은 올해 성황리에 마친 전국투어의 앙코르 무대다.

그는 “지난 투어 때 올림픽공원에서 공연하며 체육관에서 공연하고픈 소원을 이뤘다”며 “이래서 인생이 재미있는 거구나”라고 느꼈다. 앞으로 공연을 주기적으로 할 생각이다. 그러려면 앨범을 내며 현역으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공연 때 앞 자리에 60대 어르신과 30대 여자가, 10대 딸이 같이 앉아 ‘소주 한잔’을 따라부르는 걸 보고 울컥했어요. ‘저 그림을 4대로 만들어보자, 그런 가수가 돼보자’란 생각을 했죠. 웃었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100살까지 공연하고 싶어졌습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부모광장>	14:45 코코몽2	19:00 지파이터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10 EBS 특강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EBS음악기행
07:00 코코몽2(재)	10: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울리베아	20:40 다큐 오늘
07:15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가을기행 기행, 스토크랜드>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재)	16:2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1:50 EBS 다큐프라임 <가족쇼>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30 오스카의 오아시스	
08:20 두다다(재)	13:10 아동학대예방 프로젝트	16:45 콧대와 친구들(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25 문화유산 코리아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리얼극장 (아빠와 사촌기)
08:50 콧대와 친구들	14:00 두키탐험대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3:35 세계 기록물 아틀라스 <화산기행>
09:05 원더볼츠(재)	14:15 우당탕탕 아이쿠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4:05 지식채널e(재)
09:20 출동! 슈퍼형제(재)	14:30 부릉! 부릉! 부릉미즈	17:45 두다다(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09:35 뽕뽕		18:00 생방송 특!특! 보너하니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수학 I>(재)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수학 I>(재)
00:50 " <수학 II>(재)	12:1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수학 I>	13:05 " <영어-듣기>
02:30 " <수학 I>	14:0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 <수학 I>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4:50 " <수학 I>
04:10 " <사회>	15:40 뉴탐스런 <생활과 윤리>(재)
05:00 " <한국사상>	16:30 " <사회>(재)
05:50 2013 포스 <수학 I B형>	17:20 " <한국사상>(재)
06:40 암흑탐스런 <화학 I>	18:10 포스(상) <수학 I B형>
07:30 2014 포스 <문학 I>	19:00 암흑탐스런 <화학 I>(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I>(재)	19:50 포스 <문학 I>(재)
09:10 " <수학 I>(재)	20:5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수학 I>(재)
10:00 뉴 탐스런 <사회>(재)	21:20 수능특강 light <영어-독해>
10:50 2013 포스 <수학 I B형>(재)	22:00 " <영어-듣기>
	23:00 2014 포스 <회화과 작문>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20 "	<수학5-2>
07:30 친절한 수학 익힘책이 5-2	16:50 "	<수학4-2>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이	<수학집중 5-2>
08:30 한경TESAT 시험대비강좌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영어 3-2>	
09:50 " <수학 I(상)>	18:40 " <수학 3-2>	
10:30 " <역사 1>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1:10 " <국어③④>	20:00 EBS 기획특강	
11:50 " <수학 2(상)>	20:50 EBS 기획시리즈	
12:30 등업산공 <수학1(하)>	21:40 EBS UCC공모 나미디	
13:10 " <수학2(하)>	22:00 등업산공 <사회3-2>	
13:50 " <과학2(하)>	22:40 한사능력검정시험 <중>	
14:30 " <수학2(하)>	23:20 중학e포스 영문본 2	
15:20 만점왕 <수학3-2>	24:00 백점공략 <수학 2>	
15:50 " <수학4-2>	24:30 " <과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5일(음 10월 4일 庚子)

子	36년생 성과가 있겠다. 48년생 위험 요소가 많으니 안전을 피하는 것이 낫다. 60년생 자료를 종합한 다음에 행하라. 72년생 오랫동안 누적 되어 온 것을 정리하게 된다. 84년생 급속히 달라지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8, 76
丑	37년생 종합적인 고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49년생 편견이나 짐작을 버려야 대안이 떠오를 것이다. 61년생 이상 징후가 보인다. 73년생 기본 개념을 중시해야만 하느니라. 85년생 유동적인 국세이니라. 행운의 숫자 : 52, 85
寅	38년생 가변적인 흐름이 적용하지 못한다면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된다. 50년생 맹점을 보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62년생 외한한 일이다. 74년생 임의적이라면 차질을 빚으리라. 행운의 숫자 : 44, 82
卯	39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니 심기일전 하자. 51년생 처리만 잘 한다면 결실을 이어지리라. 63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75년생 전면적으로 나서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58, 06
辰	40년생 애매하면 전례에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 52년생 일관된 기조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64년생 특수한 상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여준다. 76년생 순발력 있는 대처가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62, 70
巳	41년생 투명하지 않다면 문제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53년생 갑론을박하면 다각적으로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된다. 65년생 마무리가 확실해야 한다. 77년생 불완전하지만 그렇다고 속 타을 정도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07, 86

午	42년생 활동력을 강화해야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 있느니라. 54년생 중요한 일이 는의 될 것이니 놓치지 말아야겠다. 66년생 외의 탈이 생겨서 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78년생 많은 미련을 남기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9, 12
未	43년생 계획된 바를 진행하기에 썩 좋은 날이다. 55년생 마음만 먹으면 흉도 복으로 바뀔 수 있느니라. 67년생 멀리서부터 길성이 비추오니 만사여의하리라. 79년생 박자를 가한다면 성과를 보겠다. 행운의 숫자 : 71, 63
申	44년생 허심탄회하게 상의 한다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느니라. 56년생 감내할 만한 기치는 충분하다. 68년생 심층도에 비례해서 수확할 것이다. 80년생 할 일이 밀려 있으니 일찍부터 서둘러야겠다. 행운의 숫자 : 83, 42
酉	45년생 절제한다면 성숙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57년생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에 충실하자. 69년생 기만없이 제기에 불필요가 있느니라. 81년생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하점을 찾아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3, 26
戌	46년생 하늘의 도움이 클 것이니 품은 뜻을 펼쳐라. 58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 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대처하자. 70년생 조심만 하면 된다. 82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대체로운 기회를 접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7, 88
亥	47년생 익히 잘 아는 바를 하더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9년생 함께 어울린다면 목표점에 다가서게 된다. 71년생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83년생 아는 것이 오히려 우환의 씨앗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8,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진정한 가족의 의미 보여줘 “유희+훈훈”

‘가족끼리 왜이래’ 시청률 35% ‘고공행진’



악녀도 없고 복수도 없다. 출생의 비밀도, 음모도 없다. 그런 데 시청률 35%를 넘어섰다. 월계관을 쓸 자격이 있다.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이래’가 23일 방송된 29회에서 시청률 35.4%를 기록하며 35%를 넘어섰다. 강력한 막장 코드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30%를 넘기 어려운 시대에 막장 요소 없는 드라마가 모처럼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다. 가라비에 웃 짓듯 ‘조용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뿌려대던 드라마는 그 비한 방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모아 어느새 주말 안방 시청자들이 발을 담그고 마음을 기댈 넉넉한 뜻을 이뤘다.

◇ 막장 없는 35%의 금자탑=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는 지난 10월 막을 내린 MBC TV ‘왔다! 장보리’로 9월 21일 전국 37.3%, 수도권 38.6%까지 찍었다. 시청률 가뭄 시대에 가히 파란이라고 할 정도의 성적이었다. 하지만 ‘왔다! 장보리’가 37%까지 오르는 데는 온갖 막장 요소를 버무리며 때때로 요란한 소음을 낸 전략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언젠가부터 ‘고령화’된 지상파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공식이 됐다.

다재재 시대, 시청 패턴 다양화에 따른 지상파의 시청률 저하 속에서 여전히 지상파의 든든한 지지자인 50대 이상 시청자들에게는 선악 구분이 뚜렷하고 단순하고 선명한 이야기의 드라마가 먹힌다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끼리 왜이래’가 융합하게도 자극적인 내용 없는 이야기로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보란듯이 성공한 것이다.

◇ 전대미문 불효소송으로 가족의 의미 돌아보게 해=‘가족끼리 왜이래’는 전대미문 ‘불효소송’을 소재로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드라마는 일찍 사별하고 두부장사를 하면서 홀로 삼남매를 키우는 차승봉(유동근 분)이 세 자녀를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서서히 예열을 한 후 마침내 법정에서 세 자녀와 맞서는 내용으로 일차 클라이맥스를 찍었다.

가족이란, 부모 자식 간이라던 이십전심으로 혹은 대화로 풀어가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로 생각되지만 차승봉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 데는 그런 인지상정이, 상식이 분열화되고 파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실종되고 있음을 꼬집는다.

◇ 유치한듯 보이지만 미소짓게 만드는 코미디=‘가족끼리 왜이래’의 또다른 힘은 마디마디 배치된 코미디다. 유치한듯 보이지만 미소 짓게 하는 코미디가 드라마에 윤희활 역할을 하

고 있다. 특히 김상경과 김현주가 연기하는 문대주-차감심 커플의 화학작용이 유희함을 전해준다. 한때는 인기 절정의 청춘스타였지만 어느새 40세 전후가 된 김상경과 김현주가 선보이는 노총각-노처녀의 ‘밀당’이 두 배우의 변화와 함께 지켜보는 재미를 준다.

알 것 다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이없이 속매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듯 보이지만 한군데씩 심각한 결핍이 노출된 문대주-차감심 커플의 연애는 20대처럼 풋풋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간지럽고 귀엽다.

여기에 박형식-남지현-서강준이 선보이는 20대의 풋풋한 삼각관계에, 손담비가 연기하는 부자집 외동딸 출신 철부지 며느리의 엉뚱한 행동들이 드라마가 심각하게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제빵왕 김탁구’ ‘구가의 서’ 등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강은경 작가가 ‘가족끼리 왜이래’도 끝까지 훈훈하게 끌어갈지 기대된다. /연휴뉴스